

최근 1억2천여만원의 혼수도 부족하다고 아내를 때린 의사 남편 고발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차고 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다 있을까” “정신병자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분개하면서도 현상적인 분석에 그치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최근 몇년간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혼수로 인한 아내 구타사건은 한 정신병자의 행위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 병리현상의 표출현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모든 인간관계가 교환과 소비의 삭막한 틀로 환원되는 산업 자본주의의 가속화가 혼인에서도 그대로 관찰되고 있는 것이라.

지난 30년간의 급격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강화되어온 ‘나는 소유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는 물신숭배적 삶의 논리와 ‘크고 많을수록 좋은 것’이라는 가치관이 혼인을 지배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왜 신랑쪽은 그 엄청난 혼수를 당연하게 요구하고, 신부쪽은 울며 겨자먹기로 응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그동안 크게 왜곡되어온 여성들의 삶의 양식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

여성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계획하여 영위하기보다 인생의 큰 의미를 ‘결혼’이라는 데 걸고 ‘혼인적령기’가 지나기 전에 서둘러 결혼한다. 혼인적령기를 넘기면 점점 신부값(?)이 떨어지고 반만한 신랑감을 구하기가 더욱 힘들어진다는 사회통념 속에서 여성들 스스로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우리 사회가 알게 모르게 강요

의 삶을 온통 아들에게 쏟아부으면서 아들의 성장과 출세에서 생의 보람을 찾아온 만큼, 아들을 일종의 소유물로 여겨 흥정을 벌이는 것이다.

그러면 그 아들, 즉 신랑의 문제는? 엄마의 치마 폭 뒤에 숨어 눈치만 보는 신랑들, 또는 자신이 적극적으로 나서 많은 혼수를 요구하는 신랑들은 가족의 틀을 한치도 못 벗

궁금하다.

1억2천여만원으로도 보상되지 않을 정도의 빚을 진 상태의 관계가 원만할 수 없다는 건 이미 예정돼 있다.

우리 남성들도 “나는 혼수 같은 거 일체 안 바라는 사람”이라면서 혼수문제를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1억2천만원을 감수해야 하는 여성들의 비애가 어디에서 오는지에 눈을 돌리자. 그리고 자본주의에 농락당하는 혼인제도를 다시 살릴 길을 찾자.

무엇보다 1억2천만원으로도 보상되지 않을 빚을 진 존재가 아니라 함께 수저 두벌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여성들 스스로 다져나가는 것도 급선무라 생각된다.

고려의 혼속은 신랑집에서 고기와 술을 보낼 뿐이며 다른 예물은 일체 없었다 한다. 만일 재물을 받으면 중을 판 것으로 여기며 수치로 알았다 한다.

언제부터인가 빚나가기 시작한 혼인의 의미가 오늘날 자본주의 논리와 결합하여 사랑을 변질시키고 있다. 병든 결혼은 병든 가정으로 이어지고 거기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역시 그 질곡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 미래의 위기이다.

〈연세대 문화인류학 강사〉



물신숭배에 농락당하는 혼인제도

김 찬 호

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신부쪽은 혼인적령기를 넘기기 전에 만난 좋은 조건의 남편을 붙잡기 위해서라도 다소 부담스런 요구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또 남자쪽에서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딸의 편안한 시집살이를 보장하려는 의도에서 술선수범해 먼저 갖다 바치게 된다.

같은 여성으로서 혼수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시어머니의 문제는 무엇인가? 자신

아는 심리적 유아가 상태라 여겨진다.

결국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남성 우월주의와 남아 선호관념이 그 병폐의 요체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더욱 궁금한 것은 역설적이긴 하지만 1억2천여만원으로도 보상되지 않을 만큼 여성의 지위가 보잘 것 없는가 하는 점이다. 그만큼 의사라는 직종 자체가 매력적인 남편감인지도

=====